

회춘탕·표고버섯... 강진 대표 음식 밀키트로 개발한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다양한 온라인 매체서 선보일 예정

강진군은 강진을 대표하는 지역 음식을 밀키트(간편조리세트) 상품으로 개발한다고 27일 밝혔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관광이 트렌드로 정착함에 따라 강진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 강진군 홍보와 지역 소득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강진군은 최근 한정식, 회춘탕, 탕요리 등의 맛을 개선하고 단품메뉴 개발 및 정착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특화음식 개발 컨설팅 운영을 마쳤다.

이를 바탕으로 회춘탕, 표고버섯탕수, 국밥, 곱창전골 등 밀키트 대상



메뉴를 정하고 상품화 작업, 밀키트 디자인 적용, 품목제조 등록, 자가품질 검사, 포장용기 및 포장지 제작 등 밀키트 온라인 판매를 위한 사진 중

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밀키트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네이 버 쇼핑, 카카오톡 라이브, 유튜브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이번 밀키트 개발은 강진과 지역 음식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비대면 디지털 생활 방식은 거부할 수 없는 변화로 이제는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군정의 획기적인 도약을 가져올 것"이라며 "시대적 흐름과 변화를 섬세하게 관찰하고 국민 소득과 연결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홍수 기자

“진도군 농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잔류농약 분석 무료 지원

진도군이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소비자의 지역농산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농산물안전분석실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업인이 의뢰한 농산물의 잔류농약 성분 463종을 분석한다.

군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24억원을 확보해 333㎡ 규모로 총 463종의

잔류농약을 분석하는 기체질량분석기, 액체질량분석기 등 23종 39대의 분석 장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출하 전 생산단계에서 잔류농약 성분을 검사해 결과에 따라 수확시기와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 유통 중 적발되는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군은 앞으로 지역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적합 농산물 생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공급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진도=박재영 기자

나주, 전국 육상팀 동계전지훈련 '후끈'

내달 말까지 실업 11팀 등 23팀 260여명 선수단 참여



나주시로 모여든 전국 각지 육상 선수들의 거친 숨소리가 육상트랙 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29일 나주시에 따르면 종합스포츠타레파파크로 동계 전지훈련을 온 전국 육상팀 선수단 규모는 실업 11팀, 고등부 12팀 등 총 23팀 선수 260여명에 달한다.

계묘년 새해 첫 날 입소를 시작한 각 선수단은 2월 말까지 길게는 한 달 이상, 최소 25일 간 나주에 체류하면서 기량 향상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갔다.

이처럼 나주지역이 육상 전지훈련지로 주목받는 것은 종합운동장 내

육상트랙, 보조경기장, 다목적체육관 등 다양한 체육시설은 물론 선수단 체류, 영양 관리에 필요한 숙박시설과 식당 맞집이 밀집돼있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선수단이 체류 및 훈련 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체육·훈련·숙박시설 편의,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병태 시장은 최근 동계전지훈련팀 지도자, 선수단과 합숙소 인근 식당 만찬에 참석해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을 응원하기도 했다.

나주=서철훈 기자

장흥 한우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 공모' 최종 선정

2026년까지 4년간 30억원 투입... 6차 산업화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장흥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공모에 '장흥 한우지구'가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공모 선정으로 장흥군은 2026년까지 4년간 30억원을 투입해 지역특화 산업 거점 육성에 나선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은 농촌자원의 생산-가공-유통-체험 등 6차산업 고도화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1, 2, 3차 산업화 기반이 집적된 곳을 지정해 공동 이용 시설 등 기반 조성, 가공상품 개발과 유통 마케팅 지원, 체험·관광 콘텐츠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장흥군은 한우사육규모 전남도내 1위, 전국 8위의 우수한 한우산업 기반과 토요일장, 물축제 개최 등 우수한 소비기반을 갖추고 있다.

군은 한우 가공산업을 활성화시키

고 지역의 축제·관광과 연계한 융복합산업으로 한우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공모 선정은 장흥 한우의 우수성과 특화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한우산업을 2차·3차 산업과 잘 연계시켜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임민기 기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국내 최초 '스마트 안전시스템' 도입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대한민국 안전행사 표준모델 제시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지난 26일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노관규 순천시장을 비롯해 순천경찰서장, 순천소방서장, KT순천지사장 등 12개 유관기관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안전관리총합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안전사고 제로 박람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관리 총합대책 ▲경관원 안전관리 대책 ▲풍력 꽃가람 야영장 안전관리 대책 ▲불법 상행위 단속대책 등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과 미비한

사항에 대한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10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약 60만 평의 정원을 완전히 리뉴얼 하고 도심권까지 무대를 확장했다. 특히 저유지를 광활한 정원으로 재탄생시킨 '오천그린광장'과 차량이 다니던 아스팔트 도로를 잔디길로 바꿔낸 '그린아일랜드', 동천을 뱃길로 삼아 배를 타고 정원으로 향하는 '정원드림호', 국가정원에서 특별한 하룻밤을 보내는 '가든스테이'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인다.

조직위는 "정원 자체가 남녀노소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이니 하지만,

행사 권역이 확대되고 콘텐츠가 다양해진 만큼 수상·수변, 실내 밀집, 야간 등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도 많아졌다"면서 "안전관리를 최대로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이에 따라 국내 최초로 드론, 피플카운팅시스템, 웨어러블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안전재난 통합플랫폼을 구축했다. 넓은 행사 무대를 육·해·공에서 조율하고, 한치의 빗방울도 없도록 유관기관과 대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종합상황실 통합관리시스템 설계를 통해 즉각적인 상황조치가 가능한 24시간 비상대응체계도 마련했다. 순천=조순희 기자

신안, 저소득 독거노인 1300여 명 난방비 지원

신안군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독거노인 1300여 명에게 동절기 한파에 따른 긴급 난방비를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난방비 긴급 지원은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과 경제위기, 한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독거노인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난방비는 저소득 독거노인 1300여 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총 2억 5000만원의 지역상품권으로 전달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저소득 어르신들이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및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신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신안=박정재 기자

곡성,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분 추가 지원

곡성군은 농업인이 일정 기간 사용한 면세유에 대해 구입가의 상승분 일부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되는 면세유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사용된 휘발유와 경유,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된 등유이다. 해당 기간 동안 사용된 면세유는 농가별 배정량에 따라 1당 213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농협에서 면세유류 구입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관내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 희망자는 다음 달 20일까지 지역농협을 방문해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와 개인(신용)정보 조회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곡성=황성연 기자

화순 '기공체조교실' 운영 신규 대상자 선착순 15명 모집

화순군은 관절염 예방·관리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월 30일부터 기공체조교실 신규 대상자를 선착순 15명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공체조는 기혈순환과 근력강화에 도움을 주어 관절염 증상을 완화하는 운동으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아 관절염 환자들에게 권장된다. 상반기(2월 8일~4월 19일)와 하반기(9월 6일~11월 3일)로 나누어 진행되며, 매주 2회(수, 금)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보건소 건강증진실에서 진행된다.

운영 내용으로는 기공체조를 통한 심신 이완법과 호흡 훈련 및 명상 수업으로 구성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올바른 건강 지식을 습득하여 이를 생활화하고 주제적인 건강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화순=주유현 기자

해남,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 공모사업 2개소 선정

친환경 쌀 생산·유통 기반시설 확충 17억 7000만원 확보

해남군이 2023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공모 사업에 2개소가 선정되어 사업비 17억 7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남군은 전남 7개소 중 가장 많은 2개소가 공모에 선정됐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정운영농조합법인, 황산면, 화산면 율동리 일대를 중심으로 친환경 벼 재배단지 40ha 면적을 재배하고 있다. 이번 사업비 10억 2,000만원을 투입해 저온저장 및 건조 시설 등 친환경 벼 유

통기반시설을 확충해 향후 100ha 이상 면적의 친환경 쌀 생산과 유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평광야세유기쌀(주)은 마산면 노하리, 연구리 일대를 중심으로 22ha 친환경 벼 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사업비 7억 5,000만원을 투입해 저온저장 및 공동영농을 위한 광역방제기 등을 지원받아 친환경단지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영농조합법인, 농

협 등에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최대 20억원 한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면적이 20ha 이상, 친환경 인증면적은 사업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단체 구성원 모두가 친환경 농산물 의무 자조금을 납부해야 한다.

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사업주체와 계약에 따라 전속 출하를 이행하고, 사업주체는 농가와 계약물량을 책임지고 판매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신규수장을 개척해 일반농가의 친환경 전환을 견인하고 농가 생산관리를 위해 지원하게 된다. 해남=김동주 기자

동광양농협, 관내 최고 조합원 1인당 158만 원 지급

동광양농협은 최근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임원, 대의원, 내부조직장, 조합원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종합업적 최우수 영농회를 시작으로 최우수부녀회, 사업별 우수영농회에 대한 표창패 및 감사패 전달식, 동광양농협은 상호금융대출금 5000억 원 달성탑수상이 있었다.

2022년 각종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잉여금 전액 43억 100만 원으로 확정해 출자배당금 4.1%로 광양시 관내

최고로 8억 4800만원, 이용고배당 11억 7000만원, 사업준비금 8억 6100만원, 사업활성화적립금 1억 1900만원, 조합원 특별환원사업 17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12억 9900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이명기 조합장은 "동광양농협은 계묘년에도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종합업적평가 전국 1위, 상호금융대상평가 전국 1위의 농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해로 삼고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서민금융기관 역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광양농협은 지난해 예수금 6728억 원, 대출금 5119억 원 등 금융자산 1조 2000억 원 돌파해 하나로마트 매출액은 753억 원, 당기순이익은 35억 2100만 원을 기록하는 최대 실적을 거뒀고, 광양시 관내 최고인 조합원 1인당 평균 배당금 158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이러한 경영성과는 동광양농협 임직원과 조합원 및 고객님의 동광양농협 사랑에 힘입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다. 광양=조순희 기자

함평군 학교·월야면 침수 예방사업 추진

305억 투입...빗물받이·관로 등 설치

함평군이 침수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학교·월야면 도시침수 예방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함평군은 "학교·월야면 도시침수 예방사업 주민설명회"가 지난 26일 학교·월야면사무소에서 군 관계자와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기 위해 마련했다.

군은 설명회에서 침수 피해사례, 사업 및 정비계획,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수해 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군은 학교면과 월야면에 350억을 투입해 빗물받이, 관로 등을 설치하고, 근본적인 하수도 정비대책을 수립해 도심침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환경부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된 함평읍과 대동면 소재지에 대하여도 461억원을 들여 2026년까지 침수피해 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훈 맑은물사업소장은 "침수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함평=김동희 기자

우승희 영암군수 '군민과의 대화' 추진

내달 6일까지 영암읍 시작 11개 읍면 순회

영암군이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군민과의 대화를 추진한다.

군은 2023년을 '혁신 영암!' 원년의 해로 정하고, 지역 현정의 여론을 듣고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큰 영암'을 위한 새해 첫걸음을 주민과 함께 시작하고자 이 같은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대화에서 그간 주민과의 대화가 마을단위 포장 사업 등 건의사항 위주로 진행되었던 것과 달리, 면단위 현안사업이나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등 군의 혁신을 위한 소통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예년과는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행사는 각 읍면별 군의회의원 및 읍·면 기관·사회단체장과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군민이 참여

한 가운데 30일 영암읍과 삼호읍을 시작으로 31일 덕진면, 신북면에서 진행되며, 2월 1일에는 군서면과 서호면, 2일 금정면, 시종면, 3일 도포면, 확산면에 이어 마지막 6일에는 미암면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읍면 순회 대화를 마친 6일 오후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군단위 기관·사회단체장, 체육회, 산단기기업 관계자 등과 함께 군정보고 및 대담을 통해 2023년도 군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승희 군수는 "군민과 가까이에서 우리 군민이 바라는 영암군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말씀을 듣고자 한다. 언제나 지금처럼 소통하며 군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김형두 기자